

같이 보기

: 신사옥 기공식

오송 시대를 열 신사옥 기공식의 첫 발자국

대한산업보건협회 오송 신사옥 기공식

2023년은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설립된 지 60년이 되는 해다.
또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달려온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원년이 된다.

글 편집실





비의 축복과 함께 한 신사옥 기공식

전날부터 조금씩 흐려지던 하늘은 기공식 당일인 3월 14일 점심 무렵이 되면서 조금씩 빗방울을 떨어트렸고 우천에 대비하기 위한 손길들로 현장은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예상치 못한 비와 함께 시작된 오송 신사옥 기공식.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내부 행사로 진행된 행사는 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백헌기 회장과 본부 임원, 지역본부·센터 기관장, 노동조합 상집·운영위원 등을 비롯한 70여 명으로 인해 작지만 짝찬 행사가 되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관과 최경천 충청북도 도의원도 함께 참석해 더욱 빛나는 자리가 되었다.

기공식에 참석한 직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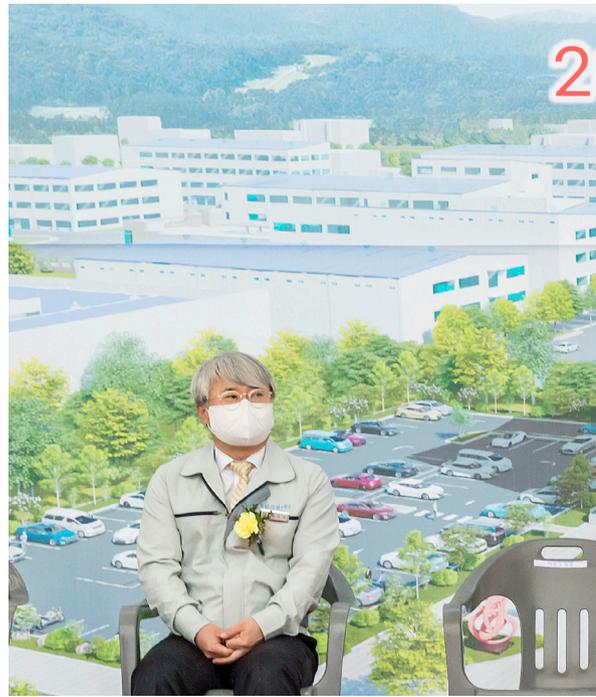


이영중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공식에서는 국민의례와 주요 참석자 및 내빈 소개, 신사옥 공사를 책임질 시공사의 공사개요 보고에 이어 백헌기 회장의 기념사로 이어졌다. 백헌기 회장은 변변한 사무 공간조차 없었던 초창기에 대한 회상과 함께 현재 서초동 사옥을 거쳐 새로운 시대로 이어질 오송 신사옥 시대에 대한 감회를 소회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옥으로 설계했다”며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랜드마크’이자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오송 신사옥 건립에 대한 의의와 함께 대한산업보건협회의 미래를 다짐했다.

또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했으며,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정책관과 최경천 충청북도 도의원은 축사를 통해 노동자의 산업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중심이 되어 온 대한산업보건협회의 헌신에 대해 치하하고, 새롭게 열리게 된 오송 시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나온 60년, 새롭게 시작될 60년

2023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기공식을 통해 첫 삽을 뜨게 된 대한산업보건협회 신사옥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대지면적 7,000㎡(연면적 11,290㎡)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진다. 이곳에는 현재 서울 서초구 사옥에 있는 대부분의 일반 업무시설이 이전할 공간과 함께 안전보건문화 활동과 확산에 기여할 산업



오송 기공식 기념 단체사진





백헌기 회장 기념사

안경덕 장관



보건 교육이 이루어질 교육 시설, 깊이 있고 체계적인 산업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이 되어줄 연구시설(연구소)이 함께 자리하게 된다. 또한, 1층에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오픈 스튜디오도 들어갈 예정으로 21세기에 걸맞는 형태의 산업보건 사업 수행이 기대된다.

완공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시공과 성공적인 입주를 다짐하며 테이프 커팅과 시삽식,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된 이날 기공식은 비가 내리는 야외에서 진행되어 행사 진행에 다소 불편이 있었으나, 겨우내 언 땅을 녹이는 봄비처럼 이제 시작된 시공 과정과 입주, 그 이후 새롭게 시작될 오송 새 시대를 축복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예로부터 이사날과 혼삿날 등 경사날 비가 내리면 잘 산다는 속설처럼 비와 함께 한 대한산업보건협회 신사옥 시공은 오송 새 시대의 시작점까지 안전하게 이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